

한우

한우협 새 집행부, 한우산업 위기 탈출 고심 송아지 안정제 개편 등 현안에 집중할 것

새롭게 구성된 전국한우협회 집행부가 최대 위기를 맞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3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회장은 “한우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협회나 생산자 농가가 현실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앞으로 송아지안정제 개편, 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특히 송아지안정제 개편에 대해 “(현재 가임암소 기준 때문에 농가들이 송아지안정제자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아지 안정제 기준변경은 지금 정부가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일 경우 3만 원을 보전해 주는 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가임암소가 90만두 100만두 미만일 때는 송아지 가격이 상승국면이기 때문에 안정제는 필요가 없다”며 “110만두 이상일 때 최소한 10만원은 보전해 줘야 그나마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상의 후 5만원선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협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협회는 이 외에도 가축의 GPS 장착문제, 사료값 안정기금 설치, 한우 학교급식 지원확대, 사료비지원, 북한에 한우고기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월과 4월 한우자조금과 농협, 정부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한우할인행사를 통해 한우소비촉진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13. 03. 15

한돈

5대 양돈 대기업 동참, 모돈 10% 감축 사업 박차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5대 양돈기업과 모돈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돈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모돈 10% 감축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3월 1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선진, (주)팜스코, 이지가족농장, 사조 축산사업부, 농업회사법인(주)도나도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말까지 모돈 10% 감축 및 적정사육규모 협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5대 양돈기업 대표단은 모돈 감축이

행 여부 점검과 관련해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제공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편 매일 말 모든 감축 실적을 기재한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기로 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모든 10% 감축 사업에 전 한돈농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장기적으로 연간 1,500만마리 출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중단기 대책으로 정부에 비육돈 30만마리 긴급 간접수매 지원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 적용, 한계농가 폐업보상 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 2013. 03. 18

계육

정병학 계육협회장, 기자 간담회서 올해 계획 밝혀 농가-계열사 상생 ... 안전 먹거리 제공을

“농가, 계열주체 모두 하나의 산업이라 생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이 지난 3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정병학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육용 (원)종계 자율감축 사업 진행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개선 △농가-계열주체간 상생의 장 마련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지속적 추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육용 종계 감축사업의 경우 3월 13일 기준 협회 물량 48만6천100수 중 35만5천897수가 진행돼 73.2%의 진행률을 보였으며, 육용 원종계는 원종 4사의 하반기 수입물량 자율 조정으로 올해 16만2천수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겉으로만 이뤄지고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경영난이 심해 동참하는 사업인 만큼 지켜지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들끼리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내 계육의 날을 제정하고 친목행사를 열어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재는 미국, 브라질산 등의 닭고기가 냉동 상태로 수입되지만 5~10년 내 냉장 생닭도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냉장 생닭이 수입될 경우 국내 계육산업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경우 현재 닭고기의 우수성 및 영양성 관련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에 있으며 수입육 시장에 대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수입육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는 방식의 홍보는 자칫 잘못하면 국내산의 소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 국내산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학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11대 회장에 재추대 되어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3. 03. 20



낙농육우협회, 분과위 조직활성화 역점 2013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명환)는 지난 3월 13일(수)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임원회의를 갖고 2013년도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낙농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지회와 협조하여 분과위 지역조직 결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키로 하였다. >낙농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개, >여론조성을 위한 대외활동 전개, >분과위원회 활동방안 정립을 위한 임원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조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지역조직 결성, >협회 조직활성화에 기여를 5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회의직후, 청년분과위 대표단은 낙농진흥회를 방문하여 이근성 회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연간총량제 상한선 폐지, 기준원유량 회수율 조정, 헬퍼지원, 후계낙농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 이근성 회장은 “분과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흥회 농가의 연간총량제, 기준원유량 회수율 문제는 조만간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년분과 임원회의에는 손정렬 회장이 참석하여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청년분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청년분과위 조직활성화, 후계낙농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전국최대축제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산청엑스포와 함께 열린다

전국 양봉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9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봉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 3월 12일 한국양봉협회 조균환 회장, 경상남도, 산청군 등 관계자 20여명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리를 함께해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사항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리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연계추진, '제39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일정 조기 확정, 숙박시설과 교통편의 점검 등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이었다.

산청군 관계자는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인 '2013년 제39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기간 내 유치해 한방의 고장 산청군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명품 산청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산물의 우수성을 입증시켜 군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 기자 2013. 03. 12



사슴협회로 명칭 개칭

양록협회, 내달 총회 안건 상정

한국양록협회가 한국사슴협회로 명칭을 개칭한다.

지난 3월 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양록협회 이사회는 양록이라는 명칭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생소해 국내 사슴 산업 및 협회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 제고를 위해 '한국사슴협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건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기로 했다.

또 지회가 없는 지역의 지회 설립 유도 및 농가의 회원 가입을 통한 조직 강화를 위해 지회 설립을 위한 회원 정원수 기준을 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기로 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농가 경영채산성 악화 및 사슴 결핵병 등 각종 질병 감염에 따른 사육 두수 감소로 회원농가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협회의 조직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지회 설립 기준을 완화해 회원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격월로 발행되던 한국양록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월간호로 변경하고 월간 발행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 변경 방안을 총회에서 논의기로 했다.

정유환 회장은 "양록산업은 여러해 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사육의지 감소로 사육농가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협회로 단결해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이해진 기자 2013. 03. 15